

心主에 대한 考察

¹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²제한동의학술원
³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 ⁴원광대학교 한국전통의학연구소
宋志靑^{1, 2} · 金民乾¹ · 李奎元¹ · 韓來暻¹ · 嚴東明^{3, 4}*

A Study on the Meaning of Simju

Song Jichung^{1, 2} · Kim Mingeon¹ · Lee Gyuwon¹

Han Laegyeong¹ · Eom Dongmyung^{3, 4}*

¹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²Jeahan Korean Medical Academy, Daegu Haany University

³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⁴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Objectives : The word, Simju are usually regarded as Simpo. However, I recognized that Simju was not Simpo in *Huandinsijing*. Therefore, I tried to find out the meaning of Simju in *Huangdineijing* and also tried to find out the meaning of Simpo, Simporak and Porak in *Huangdineijing* because those words are related to Simju.

Methods : I referred several annotations, which explained the words ; Simju, Simpo, Simporak, Porak and classified the meanings.

Results : 22 Simju out of 25 in *Huangdineijing* didn't mean Simpo. Those meant Gwoleum of Sugwoleum. Rest of 2 Simju meant heart and 1 meant Simpo. Only one Simju meant Simpo even though Simju are usually regarded as Simpo.

Conclusions : The word couldn't mean the same meaning comparing to what are usually used as a certain meaning, so researchers could consider to treat several words' meaning by time and places.

Key Words : *Huangdineijing*, Simju, Simpo, Porak, terminology

I. 序 論

* Corresponding Author : Eom Dongmyung,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460 Iksandae Rd Iksan City Cheonbuk ROK.
Tel : +82-63-850-6941 Fax : +82-63-842-4328
E-mail : haksan@wku.ac.kr
Received(25 January 2016), Revised(16 February 2016), Accepted(17 February 2016).

언어의 역사성이란 언어가 생성, 발전, 소멸하는 속성을 뜻하는데, 이는 언어가 존재하는 사회와 문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시공간에 따라 변화하므로, 언어를 파악할 때에는 문화와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

여러 시대를 걸쳐서 전해온 서적의 경우 저술 당시 쓰인 언어의 본래 의미가 먼 후대 사람들에게 제

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비유적 표현이 많은 경우라면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의학분야의 용어도 이와 같이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그 함의가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黃帝內經』(이하 『內經』이라 함)에 기록된 용어들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內經』은 漢代에 成書되었으나, 현재 우리가 읽는 『內經』은 宋代의 판본일 뿐만 아니라, 『內經』 전체를 동일한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의 의미변화 및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心主’와 관련하여 『黃帝內經大詞典』¹⁾에는 心主를 心臟, 心包絡經脈, 厥陰脈의 의미라고 하였고, 『內經詞典』²⁾에는 心主를 心包, 手厥陰心包經의 의미라고 하여 心主에 대한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인지 최근 『內經』에 사용된 용어 정의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심현아³⁾는 연구를 통해 『內經』 내 특정 글자의 의미에 대해 考察하였고, 엄동명⁴⁾은 『內經』 내 특정 문구의 의미에 대해 考察하였다.

대개 心主란 心包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최근 『內經』 내 心主 용어들을 살펴보면 心主가 心包를 의미하는 경우보다 다른 의미의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心主’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心主의 의미에 대한 기존 연구는 없었고, 心主가 心包라는 관점에서 心包에 대한 기존 연구들로는 心を 둘러싸는 膜으로 보거나 심장 주변의 혈관 등으로 보는 관점⁵⁾, 心囊·心臟瓣膜·冠狀血管系·림프계·血

管系·自律神經系·中樞神經系 등으로 보는 관점⁶⁾, 腦로 보는 관점⁷⁾ 등이 있어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었다.

예로부터 동양학은 이전 세대의 텍스트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그와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서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주가들은 韓醫學古書를 연구할 때 이전 주석가들의 견해를 考察한 후 자신의 견해나 의견을 다시 注를 달아 설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학이론 형성 초기에 해당되는 漢代의 心主의 의미를 조명해보고자 하였고, 방법으로는 『內經』에 나오는 ‘心主’에 대한 여러 주가들의 注를 참고하여 그 의미에 따라 분류해보았다. 또한 心主와 동의어로 간주되는 心包, 心包絡, 包絡 의미를 마찬가지로 분류하였다.

II. 本 論

1. 心主

『黃帝內經素問』(이하 『素問』이라 함)과 『黃帝內經靈樞』(이하 『靈樞』라 함)에 나오는 心主는 다음과 같다.

1) 『素問』「血氣形志」：手太陽與少陰爲表裏 少陽與心主爲表裏 陽明與大陰爲表裏 是爲手之陰陽也⁸⁾

이 문장은 六經의 血氣多少와 表裏關係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 『黃帝內經素問今釋』에서는 “心主는 즉 心包絡이니 厥陰經脈에 속한다.”⁹⁾라고 하였다. 여기서 表裏관계는 臟腑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心主는 心包絡을 의미하지만, 문맥상으로 心主는 手厥陰의 厥陰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1) 周海平, 申洪硯, 朱孝軒. 黃帝內經大詞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204.

2) 張登本, 武長春. 內經詞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207.

3) 심현아 외 3인. 『黃帝內經』中“死”字意味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2. 25(3).

심현아 외 3인. 『黃帝內經』中“腑”字意味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2. 25(4).

4) 엄동명. 『素問』「脈要精微論」春日浮에 대한 새로운 解釋.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3. 16(1).

엄동명 외 3인. 胞에 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 24(4).

5) 이봉효 외 12 인. 腹募穴·背俞穴과 解剖學的 臟腑의 相關性에 대한 통계적 분석 및 心包와 三焦의 解剖學的 臟器推定. 大邱韓醫大學校 濟韓東醫學術院. 2009. 34(1)

6) 南相環. 心包에 關한 文獻의 考察. 大韓漢方內科學會誌. 1988. 9(1).

7) 배오성. 腦와 心包에 關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5. 18(4).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95.

9) 王琦 外 5人 編著.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p.130. “心主 卽心包絡 屬于厥陰經脈”

2) 『素問』「通評虛實論」：刺足少陽五刺而熱不止 刺手心主三 刺手太陰經絡者大骨之會各三¹⁰⁾

이 문장은 疾病에 따른 刺鍼部位와 방법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 馬蒔는 ‘만약 자침하고도 熱이 멈추지 않으면 마땅히 手厥陰心包絡經의 天池穴을 자침해야 한다.’¹¹⁾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문의 心主는 手厥陰經의 厥陰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3) 『素問』「厥論」：手太陰厥逆 虛滿而欬 善嘔沫 治主病者 手心主少陰厥逆 心痛引喉 身熱 死不可治¹²⁾

이 문장은 十二經의 厥證을 말한 것인데, 그 중 手太陰, 手心主少陰, 手太陽의 十二經脈중 4개의 經脈에 관한 내용만을 발췌하였다. 이 문장에 대하여 楊上善¹³⁾, 王冰¹⁴⁾, 馬蒔¹⁵⁾, 吳昆¹⁶⁾, 張介賓¹⁷⁾은 ‘手心主를 手厥陰經이다.’고 보았고, 張志聰¹⁸⁾과 高世忒¹⁹⁾은 ‘手心主가 手厥陰包絡의 氣이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의 心主는 手厥陰經의 厥陰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4) 『素問』「皮部論」：其出者 從陰內注於骨 心主之陰 名曰膏肓 上下同法 視其部中有浮絡者 皆心主之絡也 絡盛則入客於經²⁰⁾

이 문장은 十二經脈의 皮膚分部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馬蒔는 ‘心主之陰은 厥陰²¹⁾’이라고 하였고, 張介賓은 ‘心主之陰은 厥陰의 絡脈이다.’²²⁾라 하였으며, 吳昆은 ‘心主는 手厥陰이다.’²³⁾라 하였다. 결국 心主之陰은 陰經중 手厥陰經을 의미하며, 心主之絡은 手厥陰絡脈을 의미한다. 따라서 心主는 手厥陰經의 厥陰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5) 『素問』「繆刺論」：後刺足心 後刺足中指爪甲上 (중략) 後刺手心主 少陰銳骨之端²⁴⁾

이 문장은 五絡의 繆刺法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 王冰²⁵⁾, 馬蒔²⁶⁾, 張介賓²⁷⁾, 黃元御²⁸⁾, 吳昆²⁹⁾은 ‘手厥陰經의 井穴인 中衝穴이다.’고 하였고, 高世忒³⁰⁾은 ‘手厥陰經의 兪穴인 大陵穴이다.’고 하였다. 따라서 心主는 手厥陰經의 厥陰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09.
 11) 林霖.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77. “若刺之而熱不止 當刺手厥陰心包絡經 即手心主之穴三痛 宜是“天池”穴也.”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70.
 1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7. p.176. “手心主手厥陰心包絡脈 起於胸中 出屬心包 下膈歷絡三焦”
 14) 張登本. 醫學全書, 王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214. “手心主脈 起於胸中 出屬心包 手少陰脈 其支別者 從心系 上俠咽喉 故如是”
 15)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397. “心主之脈 起於胸中 出屬心包 手少陰脈 其支別者 從心系 上俠咽喉也”
 16)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198. “手厥陰心主之脈 起於胸中 出屬心包絡”
 17) 李志庸. 醫學全書, 張景岳.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75. “手心主厥陰之脈 起於胸中 出屬心包絡”
 18)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255. “手心主者 手厥陰包絡之氣也”
 19)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3. p.306. “手心主 厥陰包絡”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98.
 21)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460. “心主之陰 當是厥陰之陰 名曰膏肓 肩者 重也”
 22) 李志庸. 醫學全書, 張景岳.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74. “其心主之陰 謂厥陰之絡也 心主之陰 手厥陰之陰也 厥陰者 兩陰交盡 陰之極也”
 23)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230. “心主者 手厥陰也”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26.
 25) 張登本. 醫學全書, 王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291. “手心主 謂中衝穴 手心主之井也”
 26)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539. “心包之中衝 心之神門 刺左右 各一痛 其病立已”
 27) 李志庸. 醫學全書, 張景岳.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90. “手厥陰之井中衝穴也”
 28) 黃元御. 素問懸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291. “後刺手心主 手厥陰之中衝也”
 29)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263. “謂中衝穴 手心主之井也”
 30)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3. p.425. “後刺手心主少陰銳骨之端各一痛 心手少陰掌後高骨大陵兪穴也”

6) 『靈樞』「本輸」：腋內動脈 手太陰也 名曰天府 腋下三寸 手心主也 名曰天池³¹⁾

이 문장은 項腋頭面의 絡脈別處를 설명한 것인데, 이에 대해 張志聰은 ‘手太陰과 手心主는 中膻에서 나온다.’³²⁾고 하였고, 黃元御는 ‘手三陰은 가슴에서 손으로 走한다.’³³⁾고 설명하였다. 이는 모두 手厥陰經脈의 순행노선을 설명하였으므로 이 문장에서의 心主는 手厥陰經의 厥陰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7) 『靈樞』「終始」：脈口一盛 病在足厥陰 厥陰一盛而躁 在手心主³⁴⁾

이 문장은 溢陽·溢陰과 關格에 대해 설명한 것인데, 張介賓은 ‘脈口가 한 배 성하면 병이 足經의 厥陰에 있는데, 만약 더하여 躁動하면 陰中の 陽이 되어 위로 올라가 手厥陰心主에 있게 된다.’³⁵⁾라고 하여 手心主를 手厥陰經脈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문의 心主는 手厥陰經의 厥陰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8) 『靈樞』「經脈」：肺手太陰之脈 起于中焦 (중략) 下循膈內 行少陰心主之前 下肘中³⁶⁾

이 문장은 肺手太陰肺經의 經脈走行에 관한 것인데, 張介賓의 ‘少陰은 心經이고, 心主는 手厥陰經이다.’³⁷⁾와 馬蒔의 ‘心主는 手厥陰心主包絡이다.’³⁸⁾의 설명을 통해 보았을 때 心主는 手厥陰經의 厥陰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또한 張介賓은 ‘手三陰經은 太

陰經이 앞에 있고, 厥陰經이 가운데에 있고, 少陰經이 뒤에 있다.’³⁹⁾고 하였다. 手太陰經이 少陰經과 厥陰經 앞을 走行하는 것에도 비추어 볼 때 본문의 手厥陰經의 厥陰으로 보아야 한다.

9) 『靈樞』「經脈」：心手少陰之脈 起于心 (중략) 下循膈內後廉 行手太陰心主之後 下肘內 (중략) 循小指之內 出其端⁴⁰⁾

이 문장은 手少陰心經의 經脈走行에 관한 것인데, 馬蒔⁴¹⁾, 張介賓⁴²⁾, 張志聰⁴³⁾은 ‘손의 三陰經은 太陰經이 앞에 있고, 厥陰經이 가운데에 있고, 少陰經이 뒤에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문의 心主는 手厥陰經脈의 厥陰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10) 『靈樞』「經脈」：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 起于胸中 … 循小指次指出其端⁴⁴⁾

‘經脈’은 十二經脈의 流注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문장은 手厥陰心包絡에 대한 설명인데, 이에 대해 張介賓은 ‘心이 五藏六府의 주재자이므로 心主이다.’⁴⁵⁾고 말하였다. 또한 張介賓이 ‘邪客篇’을 인용하며 말하기를 ‘心은 五藏六府의 주인이니, 모든 邪氣가 心에 있는 것은 모두 心의 包絡에 있는 것이다. 包絡이라는 것은 心이 주재하는 脈이니, 그 脈의 出入과 屈折, 運行的 빠르기가 모두 手少陰心經의 脈行과 같다.’⁴⁶⁾라고 하였으니, 이는 心包絡을

3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2.

32) 張志聰. 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20. “手太陰心主 并出于中膻”

33) 黃元御. 靈樞懸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88. “手之三陰 自胸走手”

3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71.

35) 李志庸. 醫學全書, 張景岳.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84. “脈口一盛 病在足經之厥陰 若加以躁則爲陰中之陽而上 在手厥陰心主矣”

3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79.

37) 李志庸. 醫學全書, 張景岳.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25. “少陰 心經也 心主 手厥陰經也”

38)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92. “手厥陰心主包絡”

39) 李志庸. 醫學全書, 張景岳.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25. “手之三陰 太陰在前 厥陰在中 少陰在後也”

4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0.

41)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120. “手少陰經 起于心…行手太陰心主兩經之後 歷青靈穴 下付內廉 抵少海”

42) 李志庸. 醫學全書, 張景岳.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26. “手之三陰 少陰 居太陰厥陰之後”

43) 張志聰. 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100. “手少陰經 起于心 … 行手太陰心主兩筋之間 …”

4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2.

45) 李志庸. 醫學全書, 張景岳.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28. “心主者 心之所主也 心本手少陰 而復有手厥陰者 心包絡之經也”

46) 李志庸. 醫學全書, 張景岳.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28. “心者 五藏六府之大主也 諸邪之在心者 皆在

뜻한다.

한편 본 편에서 十二經脈을 설명할 때 ‘臟腑+手足+六氣之脈’ 형태로 각 經脈을 나타냈지만 유독 手厥陰心包經만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이라 하여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위 문장을 다시 살펴보면 心主의 위치는 장부가 들어가야 하므로 心主는 장부를 지칭해야 하고 따라서 心主는 心包(絡)를 의미해야 한다. 결국 본 편의 心主는 心包(絡)을 대신하는 용어이며, 나머지 11개 經脈명칭과 동일하게 서술한다면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은 ‘心主手厥陰之脈’ 또는 ‘心包絡手厥陰之脈’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11) 『靈樞』「經脈」：手心主之別 名曰內關 去腕二寸 出于兩筋之間循經以上 繫于心包 絡心系 實則心痛 虛則爲頭強 取之兩筋間也…手少陽之別 名曰外關 去腕二寸 外繞臂 注胸中 合心主⁴⁷⁾

이 문장은 十二經別의 이름, 경로, 屬絡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그 경맥의 虛實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鍼法을 설명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黃元御는 ‘內關은 혈명으로 手心主는 目銳眥부터 별도로 手少陽經으로 향하는데, 두 근 사이에서 취하니 즉 內關이다.’⁴⁸⁾고 하였는데, 內關穴은 手厥陰經脈의 絡穴이므로 본문의 心主는 手厥陰經의 厥陰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12) 『靈樞』「經別」：手少陽之正指天別于巔 入缺盆 下走三焦 散于胸中也 手心主之正別下淵腋三寸 入胸中 別屬三焦 出循喉嚨 出耳後 合少陽完骨之下 此爲五合也⁴⁹⁾

이 문장은 十二經別의 경로와 十二經別의 手足三陰三陽간 表裏·離合관계를 설명하였다. 相合관계

心之包絡 包絡者 心主之脈也 其脈之出入屈折之疾徐 皆如手少陰心主之脈行也”

4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4.

48) 黃元御, 靈樞懸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69. “內關, 穴名, 手心主自此別走手少陽, 取之兩筋之間 卽內關也”

4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97.

는 총 六合⁵⁰⁾이 있는데, 이 중 본문은 五合부분만 발췌한 것이다. 이에 대해 馬蒔는 ‘手心主를 手厥陰經脈이다.’⁵¹⁾라 하였으며, 張志聰은 手心主에 대해 ‘手心主之正’으로 설명⁵²⁾하였는데 이는 手厥陰經脈의 經脈의 흐름과 같다. 또한 楊上善⁵³⁾, 張介賓⁵⁴⁾, 黃元御⁵⁵⁾는 手心主와 手少陽이 表裏를 이룬다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心主는 手厥陰經의 厥陰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13) 『靈樞』「經水」：手少陰外合于澮水 內屬于心 手心主外合于澮水 內屬于心包⁵⁶⁾

이 문장은 十二經脈이 안으로는 五藏六府에 이어지고 밖으로는 十二經水에 相合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 중 手少陰脈과 手心主脈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張志聰은 ‘血은 神氣이니 陰 중에 맑은 것으로 心이 주관하는 바이고 手厥陰心包絡과 합해져 經脈의 가운데를 운행한다. 두 개의 水 흐름이 합치는 것과 같으므로 手心主는 밖으로 澮水에 합하고 안으로 心包에 屬한다.’⁵⁷⁾고 하였다. 즉 본문의 手心主는 經脈을 칭하는 것이므로 手厥陰經脈을 뜻하며, 心主는 手厥陰經의 厥陰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50) 六合: 一合은 足太陽과 足少陰이고, 二合은 足少陽과 足厥陰이고, 三合은 足陽明과 足太陰이고, 四合은 手太陽과 手少陰, 五合은 手少陽과 手厥陰이고, 六合은 手陽明과 手太陰이다.

51)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193. “手厥陰心包絡經 乃手心主之脈也”

52) 張志聰, 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145. “手心主之正 別經脈而下行於淵液之分 下淵液三寸以入胸中 別屬三焦 出循喉嚨 上出耳後 合少陽經別於完骨之下 此爲五合也”

5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7. p.47. “手心主別 從手上行至腋 下腋三寸 至於淵腋 入於胸中 屬三焦已 上行出耳後骨 下合手少陽 此手少陽心主表裏以爲五合”

54) 李志庸, 醫學全書, 張景岳.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31. “三焦心主表裏經脈 相爲一合也”

55) 黃元御, 靈樞懸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69. “手心主與手少陽 爲表裏 至完骨而合少陽 此爲五合也”

5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99.

57) 張志聰, 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149. “夫血者神氣 陰中之清 心所主也 合厥陰包絡而流行於經脈之中 猶二水之合流 故手心主外合於澮水 內屬於心包”

14) 『靈樞』「經筋」：手心主之筋 起于中指 與太陰之筋並行 結于肘內廉 上臂陰 結腋 腋下 下散前後挾脅 其支者 入腋散胸中 結于臂⁵⁸⁾

이 문장은 手心主之筋의 경로와 흠어지고 맺히는 곳의 분포를 설명하였는데, 이에 대해 張景岳은 모두 手厥陰經筋으로 이해⁵⁹⁾하였다. 따라서 위의 手心主之筋은 手厥陰經筋이며, 心主는 手厥陰經의 厥陰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15) 『靈樞』「營氣」：氣從太陰出 注手陽明 (중략) 從腎注心 外散于胸中 循心主脈 出腋下臂 出兩筋之間 入掌中 出中指之端 還注小指次指之端 合手少陽⁶⁰⁾

이 문장은 營氣의 循環에 대해 설명인데, 이와 관련하여 張介賓은 手厥陰經의 支脈으로 설명⁶¹⁾하였고, 馬蒔는 ‘心主脈을 따르니 즉 心包絡經이다.’⁶²⁾고 하였다. 따라서 본문의 心主脈은 手厥陰經脈을 뜻하며, 心主는 手厥陰經의 厥陰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16) 『靈樞』「口問」：黃帝曰 人之太息者 何氣使然 歧伯曰 憂思則心系急 心系急則氣道約 約則不利 故太息以伸出之 補手少陰心主 主少陽 留之也⁶³⁾

이 문장은 한숨의 機轉 및 刺法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이에 대해 楊上善은 手少陰心主를 手少陰經과 手心主二經으로 이해⁶⁴⁾하였으며, 張介賓은 ‘心主는

厥陰經이다.’⁶⁵⁾고 하였다. 한숨을 쉴 때 心主를 補하여야 한다고 했으므로, 手心主는 手厥陰經脈을 나타내므로, 心主는 手厥陰經의 厥陰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17) 『靈樞』「口問」：太息 補手少陰心主 足少陽留之 涎下 補足少陰⁶⁶⁾

이 문장은 十二奇邪의 機轉과 治法에 대한 총결에서 太息부분만 발췌한 것인데, 이에 대해 張志聰은 ‘王芳侯가 말하길 心主는 곧 包絡之經이다.’⁶⁷⁾고 하였다.

또한, 본편에서 十二經脈의 이름을 거론할 때 臟腑의 명칭 없이 三陰三陽만으로 명명하였기 때문에, 본문의 手心主는 手厥陰經脈으로 볼 수 있으며 心主는 手厥陰經의 厥陰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18) 『靈樞』「五亂」：氣在于心者 取之手少陰心主之輸 氣在于肺者 取之手太陰榮足少陰輸⁶⁸⁾

이 문장은 五亂의 刺法에 관한 내용인데, 대구를 이루는 ‘手太陰經의 榮穴과 足少陰經의 輸穴’부분을 보면 본 編에서는 經脈을 생략한 채 手足陰陽을 이용하여 經脈의 명칭을 나타냈다. 또한, 馬蒔는 手心主를 厥陰心包絡으로 간주⁶⁹⁾하였고, 張介賓⁷⁰⁾과 黃元御⁷¹⁾의 ‘心主의 俞穴은 手厥陰의 大陵이다’고 한 부분과 楊上善이 ‘手少陰心主之輸’를 ‘手少陰經과 手心主經의 俞穴’로 간주한 사실⁷²⁾에서도 보듯

p.189. “手少陰手心主二經 皆是心經”

65) 李志庸. 醫學全書, 張景岳.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79. “心主 厥陰經也”

6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59.

67) 張志聰. 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264. “王芳侯曰 本經凡曰手少陰心主乃包絡之經 以相而代行君今者也.”

6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76.

69)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314. “手心主 則厥陰心包絡經之輸穴大陵”

70) 李志庸. 醫學全書, 張景岳.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83. “心主之輸 手厥陰大陵也”

71) 黃元御. 靈樞懸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41. “心主之俞 大陵也”

5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04.

59) 李志庸. 醫學全書, 張景岳.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28.

6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13.

61) 李志庸. 醫學全書, 張景岳.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62. “手厥陰心主之支者 別掌中 還注無名指端 以交於手少陽之關衝 循臂上行 注臚中 下膈 散於三焦也”

62)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226. “循心主脈 卽心包絡經”

6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59.

64)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7.

이 手心主는 手厥陰經脈이며 心主는 手厥陰經의 厥陰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19) 『靈樞』「脹論」：胸腹 藏府之郭也 膻中者 心主之宮域也 胃者 太倉也 咽喉小腸者 傳送也⁷³⁾

이 문장은 脈脹과 膚脹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관한 내용이며 인체 부위를 城郭, 宮域, 太倉 등의 구조물에 비유하고 있다. 『素問』에 ‘心은 君主의 職官으로 神明이 나온다.’⁷⁴⁾고 하여 心을 君主에 비유하였다. 이것과 본문의 ‘心主之宮域’이라는 말을 연관시켜보면, ‘宮域’은 궁전이고 이는 王이 지내던 곳이니 心主는 心臟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楊上善은 ‘膻中은 心肺의 氣가 있다.’⁷⁵⁾고 하였고, 張介賓은 ‘膻中은 胸中이니 肺가 위에서 덮고 膈膜이 아래에서 막아서 淸虛하고 周密한 宮이 되니 心主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宮城이다.’⁷⁶⁾고 하였다. 아울러 心主에 대하여 『內經詞典』⁷⁷⁾은 心包라고 하였고, 『黃帝內經大詞典』⁷⁸⁾은 心臟이라고 하였으나, 주가들의 해석을 참고하여 考察한 결과 본문의 心主는 臟器로서의 心臟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20) 『靈樞』「禁服」：寸口大于人迎一倍 病在足厥陰 一倍而躁 在手心主⁷⁹⁾

이 문장은 임상에서 침 치료를 할 때 반드시 먼저 經脈이 순행하는 노선을 알아서 안으로는 오장

을, 밖으로는 육부를 자침하여야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馬蒔는 手心主를 經脈으로 간주⁸⁰⁾하였는데, 따라서 心主는 手厥陰經의 厥陰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21) 『靈樞』「衛氣」：手心主之本 在掌後兩筋之間二寸中 標在腋下三寸也⁸¹⁾

이 문장은 十二經脈의 標本과 虛實治法에 관한 내용인데, 馬蒔는 ‘手心主의 本은 즉 手厥陰心包絡經의 本이다.’⁸²⁾라 하였다. 또한, 標本の 정의에 따르면 標와 本은 六經, 手와 足を 나눈다면 十二經脈에서 존재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手心主는 手厥陰經脈을 뜻하고, 心主는 手厥陰經의 厥陰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22) 『靈樞』「邪客」：心主之脈 出於中指之端 內屈 (중락) 上入於胸中 內絡於心脈⁸³⁾

이 문장은 五輸의 順行·逆行의 屈折에 관한 내용인데, 이에 대해 楊上善은 心主를 經脈의 하나라고 간주⁸⁴⁾ 하였고, 馬蒔는 ‘心主之脈은 곧 手厥陰心包絡脈이다.’⁸⁵⁾고 하였다. 또한 張介賓은 脈行을 설명하면서 ‘中衝井穴, 勞宮榮穴, 大陵俞穴, 間使經穴, 曲澤合穴’⁸⁶⁾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手厥陰經脈의 五俞穴과 같으며 설명하는 脈行은 手厥陰經脈의 順行, 逆數의 屈折이다.

72)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7. p.79. “輸謂手少陰手心主二經 各第三輸也”
 7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78.
 7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4.
 75)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7. p.209. “膻中 有心肺之氣”
 76) 李志庸. 醫學全書, 張景岳.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00. “膻中 胸中也 肺覆於上 膈膜障於下 爲淸虛周密之宮 心主之所居也 故曰宮城”
 77) 張登本, 武長春. 內經詞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207.
 78) 周海平, 申洪硯, 朱孝軒. 黃帝內經大詞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204.
 7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22.

80)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375. “手厥陰心包絡經有病也”
 8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6.
 82)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396. “心主即手厥陰心包絡經之本”
 8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99.
 84)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7. p.48. “心主一經 上下恆通 是動所生 但療此經 舉手太陰心主二經 餘之十經 順行逆數例 皆同也”
 85)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474. “心主之脈 即手厥陰心包絡之脈也”
 86) 李志庸. 醫學全書, 張景岳.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79. “中指之端 中衝井也… 出兩筋之間 骨肉之際 大陵腧也 … 出行兩筋之間間使經也 … 留兩骨之會者 曲澤合也 由此 上入胸中 內絡於心脈 乃手厥陰經順行逆數之屈折”

결국 이 문장의 心主之脈은 手厥陰經脈을 의미하며 心主는 手厥陰經의 厥陰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23) 『靈樞』「邪客」：黃帝曰 手少陰之脈獨無臉 何也 歧伯曰 少陰 心脈也 心者 五藏六府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 其藏堅固 邪弗能容也 容之則心傷 心傷則神去 神去則死矣 故諸邪之在於心者 皆在於心之包絡 包絡者 心主之脈也 故獨無臉焉⁸⁷⁾

이 문장은 手少陰心脈의 俞穴이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인데, 張景岳은 ‘手少陰은 心經이고 手厥陰은 心包絡經이니 經脈은 비록 둘이지만 臟은 실제로 하나이다.’⁸⁸⁾고 하였다. 한편, 본문의 心主는 『內經詞典』의 정의대로 心包로 간주⁸⁹⁾하거나 手厥陰經脈으로 이해하면 心包와 經脈을 반복 서술한 문장이 되므로, 心臟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문장의 心主는 心臟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24) 『靈樞』「邪客」：黃帝曰 少陰獨無臉者 不病乎 歧伯曰 其外經 病而藏不病 故獨取其經於掌後銳骨之端 其餘脈出入屈折 其行之徐疾 皆如手少陰心主之脈行也 故本臉者 皆因其氣之虛實疾徐以取之⁹⁰⁾

이 문장은 手少陰脈에 輸穴이 없는 이유를 설명한 문장인데, 이에 대해 馬蒔는 ‘手厥陰心包絡의 脈이다.’⁹¹⁾고 하였다.

본문의 ‘手少陰心主之脈’은 ‘手少陰의 脈과 手心主의 脈’으로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心主의 부분에 三陰三陽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앞 문단들과 對句를 이루며 의미가 통한다. 따라서 위의 본문은 ‘手少陰

의 脈과 心主의 脈’, ‘手少陰의 脈과 (手)厥陰의 脈’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본문의 心主는 手厥陰經의 厥陰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25) 『靈樞』「九鍼論」：手陽明太陰爲表裏 少陽心主爲表裏 太陽少陰爲表裏 是謂手之陰陽也⁹²⁾

이 문장은 三陰三陽의 表裏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이에 대해 張介賓은 ‘心主는 厥陰이다.’⁹³⁾라고 설명하였다.

表裏관계란 臟腑관계에서 언급하는 것이므로, 이 본문에서 心主는 手厥陰經의 厥陰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2. 心包絡, 心包, 包絡

1) 心包絡

1) 『素問』「刺法論」：金欲降而地形窒抑之 降而不下 抑之鬱發 散而可入 當折其勝 可散其鬱 當刺心包絡所出 刺手少陽所入也⁹⁴⁾ (중략) 厥陰復布 少陰不遷正 不遷正即氣塞於上 當刺心包絡脈之所流⁹⁵⁾ (중략) 臆中者 臣使之官 喜樂出焉 可刺心包絡所流⁹⁶⁾

이 문장은 六氣가 내려오지 못해서 발생하는 疾病과 刺法을 설명한 문장인데, 馬蒔는 ‘心包絡의 井穴은 中衝이다.’⁹⁷⁾고 하였고, 또 ‘心包絡의 榮穴은 勞宮이다.’⁹⁸⁾고 하였다.

따라서 본문의 心包絡은 心包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8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99.

88) 李志庸. 醫學全書, 張景岳.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79. “手少陰 心經也 手厥陰 心包絡經也 經雖分二 臟實一原”

89) 張登本, 武長春. 內經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207.

9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99.

91)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475. “手厥陰心包絡之脈行也”

9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33.

93) 李志庸. 醫學全書, 張景岳.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80. “手少陽 三焦也 手心主 厥陰也 是爲五合”

9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82.

9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83.

9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84.

97)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810. “當刺心包絡經之井穴中衝”

98)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818. “當刺心包絡經之榮穴勞宮”

2) 『靈樞』「經脈」：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 起于胸中 出屬心包絡 下膈 歷絡三焦⁹⁹⁾
 「經脈」篇은 十二經脈의 유주에 대해 설명한 것인데, 본 편에서 十二經脈을 설명할 때 ‘臟腑+手足+六氣之脈’ 형태로 각 經脈을 나타냈지만 유독 手厥陰心包絡만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이라 하여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楊上善¹⁰⁰⁾과 張介賓¹⁰¹⁾은 ‘心이 五藏六府의 주재자이므로 心主이다.’고 하였다. 또한 張介賓이 「邪客篇」을 인용하며 말하기를 ‘心은 五藏六府의 주인이니, 모든 邪氣가 心에 있다고 함은 모두 心의 包絡에 있는 것이다. 包絡은 心이 주재하는 脈이니, 그 脈의 出入과 屈折, 運行的 속도가 모두 手少陰心經의 脈行과 같다.’¹⁰²⁾라고 하였으니, 본문의 心包絡은 현재의 心包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2) 心包

1) 『靈樞』「經脈」：三焦手少陽之脈 起于小指次指之端 上出兩指之間 循手表腕 出臂外兩骨之間 上貫肘 循臑外上肩 而交出足少陽之後 入缺盆 布臆中 散落心包 下膈循屬三焦¹⁰³⁾

이 문장은 十二經脈의 流注를 설명한 문장으로 臟腑의 屬絡관계를 나타낸다. 手少陽三焦經 本經은 三焦에 屬하고 臟腑表裏관계의 心包에 絡하므로 心包는 현재의 心包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2) 『靈樞』「經脈」：手心主之別 名曰內關

去腕二寸 出于兩筋之間循經以上 繫于心包絡心系 實則心痛 虛則爲頭強 取之兩筋間也…手少陽之別 名曰外關 去腕二寸 外繞臂注胸中 合心主¹⁰⁴⁾

이 문장은 手厥陰心包絡의 絡穴을 나타내는 문장이므로, 본문에서 心包는 그대로 心包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3) 『靈樞』「經脈」：足少陰之別 名曰大鍾 當踝後繞跟 別走太陽 其別者 并經上走于心包 下外貫腰脊 其病氣逆則煩悶 實則閉癢 虛則腰痛 取之所別者也¹⁰⁵⁾

이 문장은 足少陰腎經의 絡穴을 설명하면서 絡穴에서 별도의 가지가 心包로 향한다는 의미이므로, 본문에서 心包는 그대로 心包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4) 『靈樞』「經水」：手少陰外合于濟水 內屬于心 手心主外合于漳水 內屬于心包¹⁰⁶⁾

이 문장은 十二經脈이 안으로는 五藏六府에 이어지고 밖으로는 十二經水에 相合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 중 手少陰脈과 手心主脈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張志聰은 ‘血은 神氣이니 陰 중에 맑은 것으로 心이 주관하는 바이고 手厥陰心包絡과 합해져 經脈의 가운데를 운행한다. 두 개의 水 흐름이 합치는 것과 같으므로 手心主는 밖으로 漳水에 합하고 안으로 心包에 屬한다.’¹⁰⁷⁾라고 하였다. 즉 본문에서 心包는 그대로 心包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3) 包絡

1) 『靈樞』「經水」：火欲升而天蓬窒抑之火欲發鬱 亦須待時 君火相火同刺包絡之榮¹⁰⁸⁾

9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2.

100)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7. p.40. “心神 爲五藏六府之主 故曰心主”

101) 李志庸, 醫學全書, 張景岳.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28. “心主者 心之所主也 心本手少陰 而復有手厥陰者 心包絡之經也”

102) 李志庸, 醫學全書, 張景岳.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28. “如邪客篇曰心者 五藏六府之大主也 諸邪之在心者 皆在心之包絡 包絡者 心主之脈也 其脈之出入屈折行之疾徐 皆如手少陰心主之脈行也 故曰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

10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2.

10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4.

10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5.

10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99.

107) 張志聰, 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149. “夫血者神氣 陰中之清 心所主也 合厥陰包絡而流行於經脈之中 猶二水之合流 故手心主外合於漳水 內屬於心包”

이 문장은 足厥陰의 井穴, 手厥陰의 榮穴, 足太陰의 兪穴, 手太陰의 經穴, 足少陰의 合穴을 나타내는 문장 중 手厥陰의 榮穴을 나타내므로 包絡은 手厥陰의 厥陰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2) 『靈樞』「經水」: 少陰 心脈也 心者 五藏六府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 其藏堅固 邪弗能容也 容之則心傷 心傷則神去 神去則死矣 故諸邪之在於心者 皆在於心之包絡 包絡者 心主之脈也 故獨無臉焉¹⁰⁹⁾

이 문장은 心을 대신하여 心包가 病邪를 처리한다는 의미이므로 包絡은 현재의 心包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III. 考 察

『內經』는 心主라는 용어는 25회, 心包絡은 2회, 心包는 4회, 包絡은 2회 등장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Table 1)과 같다.

Table 1. Simju, Simpolak, Simpo, Polak in Huangdineijing

| 용어 | 편명 | | 횟수 |
|-----|---------------------------|--|-----|
| | 素問 | 靈樞 | |
| 心主 | 血氣形志, 通評虛實論, 厥論, 皮部論, 繆刺論 | 經脈(4), 邪客(3), 口問(2), 本輸, 終始, 經別, 經水, 經筋, 營氣, 五亂, 脹論, 禁服, 衛氣, 九鍼論 | 25회 |
| 心包絡 | 刺法論 | 經脈 | 2회 |
| 心包 | | 經脈(3), 經水 | 4회 |
| 包絡 | | 經水(2) | 2회 |

心主, 心包絡, 心包, 包絡이 나타내는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心主는 『素問』에서는 모두 手厥陰의 厥陰을 대신

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靈樞』「經脈」에 3회, 「邪客」에 2회, 「口問」에 2회, 「本輸」, 「終始」, 「經別」, 「經水」, 「經筋」, 「營氣」, 「五亂」, 「禁服」, 「衛氣」, 「九鍼論」에 1회는 手厥陰의 厥陰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외에 『靈樞』「經脈」에 1회는 心包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靈樞』「脹論」과 「邪客」에 각각 1회는 心臟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心包絡은 『素問』「刺法論」과 『靈樞』「經脈」에 각각 1회는 心包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心包는 『素問』에는 등장하지 않는 용어이며, 『靈樞』「經脈」에 3회, 「經水」에 1회는 心包 그 자체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包絡도 『素問』에는 등장하지 않는 용어이며, 『靈樞』「經水」에 1회는 手厥陰의 厥陰을 나타내는 용어이고, 또 다른 『靈樞』「經脈」 1회는 心包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Table 2)과 같다.

Table 2. Classification to meaning of Simju, Simporak, Simpo, Porak

| 용어 | 편명 | | 의미 |
|-----|---------------------------|--|---------|
| | 素問 | 靈樞 | |
| 心主 | 血氣形志, 通評虛實論, 厥論, 皮部論, 繆刺論 | 經脈(3), 邪客(2), 口問(2), 本輸, 終始, 經別, 經水, 經筋, 營氣, 五亂, 禁服, 衛氣, 九鍼論 | 手厥陰의 厥陰 |
| | | 脹論, 邪客 | 心臟 |
| | | 經脈 | 心包 |
| 心包絡 | 刺法論 | 經脈 | 心包 |
| 心包 | | 經脈(3), 經水 | 心包 |
| 包絡 | | 經水 | 手厥陰의 厥陰 |
| | | 經水 | 心包 |

Table 2의 내용을 의미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Table 3)과 같다.

10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99.

10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5.

Table 3. Classification to Sugwoleum, Simpo, Heart

| 의미 | 편명 | | 용어 |
|---------|---------------------------|--|-----|
| | 素問 | 靈樞 | |
| 手厥陰의 厥陰 | 血氣形志, 通評虛實論, 厥論, 皮部論, 繆刺論 | 經脈(3), 邪客(2), 口問(2), 本輸, 終始, 經別, 經水, 經筋, 營氣, 五亂, 禁服, 衛氣, 九鍼論 | 心主 |
| | | 經水 | |
| 心包 | 刺法論 | 經脈 | 心主 |
| | | 經脈 | 心包絡 |
| | | 經脈(3), 經水 | 心包 |
| | | 經水 | 包絡 |
| 心臟 | | 脹論, 邪客 | 心主 |

IV. 結 論

일반적으로 心主를 心包 또는 心包絡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內經』에 사용된 心主 용어를 살펴보니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內經』에 기재된 心主 용어 25개 중 22개는 手厥陰의 厥陰을 의미하였다. 특히 『素問』에 언급된 心主 용어 5개는 모두 手厥陰의 厥陰을 나타내는 용어였다. 이외에 『靈樞』 「脹論」과 「邪客」에 기재된 心主 용어 2개는 心臟을 나타내는 용어였고, 나머지 「經脈」에 기재된 心主 용어 1개만 心包를 나타내는 용어였다.

아울러 『內經』에 기재된 心包絡과 心包는 모두 心包(絡) 그 자체를 의미하였으며, 包絡은 『靈樞』 「經水」에 2회 기재되었는데 1회는 手厥陰의 厥陰을 나타내는 용어로, 나머지 1회는 心包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內經』이 완성되던 시기에 心包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이미 心包絡, 心包, 包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心主가 心包를 지칭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手厥陰의 厥陰을 지칭하는 경우가 다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心主는 『內經』이 완성되던 시기 心包(絡)

를 의미하는 용어로 일반화되지 않았으며, 도리어 手厥陰의 厥陰을 대신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References

- Hong WS. Jeonggyo Hwangjenaegyongsomun. Seoul. Dongyangeuihak Academy. 19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 Hong WS. Jeonggyo Hwangjenaegyongyeongchu. Seoul. Dongyangeuihak Academy. 19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 Gao SZ. Huangdineijingsuwendzhejie. Beijing. Xueyuan Press. 2003.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3.
- Ma S. Huangdineijinglingshuzhuzhengfawei. Beijing. Xueyuan Press. 2007.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7.
- Wu K. Huangdineijinglingsuwendzhejie. Beijing. Xueyuan Press. 2007.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7.
- Ma S. Huangdineijingsuwendzhejie. Beijing. Xueyuan Press. 2005.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5.
- Zhou HP, Shen HY, Zhu XX. Huangdineijindacidian. Beijing. Zhongyiguj Press. 2008.
周海平, 申洪硯, 朱孝軒. 黃帝內經大詞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 Zhang DB, Wu ZC. Neijingcidian. Beijing. Renminweisheng Press. 1995.
張登本, 武長春. 內經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 Zhang ZC. Huangdineijinglingshujizhu. Beijing.

- Xueyuan Press. 2006.
張志聰. 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6.
10. Huang YY. Lingshuxuanjie. Beijing. Xueyuan Press. 2008.
黃元御. 靈樞懸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8.
11. Huang YY. Suwenxuanjie. Beijing. Xueyuan Press. 2008.
黃元御. 素問懸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8.
12. Sim HA, et al.. A Review on Meaning of 'Si' Character in "Huangdineijing".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2. 25(3).
심현아 외 3인. 『黃帝內經』中“死”字意味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 2012. 25(3).
13. Sim HA, et al.. A Review on Meaning of 'Fu(附)' Character in Huangdineijing(黃帝內經).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2. 25(4).
심현아 외 3인. 『黃帝內經』中‘附’字意味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 2012. 25(4).
14. Eom DM. New interpretation of `Chunilbu` of Maekyojeongmiron in 『Somun』.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3. 16(1).
엄동명. 『素問』「脈要精微論」'春日浮'에 대한 새로운 解釋. 大韓韓醫學原典學會. 2003. 16(1).
15. Eom DM, et al.. A Review on bao(胞).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1. 24(4).
엄동명 외 3인. 胞에 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 24(4).
17. Lee BH, et al.. A statistical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Bokmohyul·Baesuhyul and anatomical organs and conjecture of the organs of Simpo and Samcho. Eastern-Western Medicine. 2009. 34(1).
이봉효 외 12인. 腹募穴·背俞穴과 解剖學的 臟腑의 相關性에 대한 통계적 분석 및 心包와 三集의 解剖學的 臟器 推定. 大邱韓醫大學校 濟韓東醫學術院. 2009. 34(1)
18. Nam SG. A literatual study on Simpo(心包 : pericardium). Journal of KOIMS. 1988. 9(1).
南相璟. 心包에 關한 文獻的 考察. 大韓漢方內科學會誌. 1988. 9(1).
19. Bae OS. A Study on the actual relationship between brain and SIMPO.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5. 18(4).
배오성. 腦와 心包에 關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5. 18(4)
20. Zhang ZC. Huangdineijingsuwenjizhu. Shanghai. Shanghai Science & Technology Press. 1990.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21. Yang SS. Huangdineijingtaisu. Beijing. Renimnweisheng Press. 1990.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22. Zhang DB. Yixuequanshu, Wangbing. Beijing. Zhingguozhongyiyao Press. 2006.
張登本. 醫學全書, 王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23. Wang Q, et al.. Huangdineijingsuwenjinshi. Guizhou. Guizhourenmin Press. 1981.
王琦 외 4인. 黃帝內經素問今釋.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81.
24. Le ZY. Yixuequanshu, Zhangjingyue. Beijing. Zhingguozhongyiyao Press. 1999.
李志庸. 醫學全書, 張景岳.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